



#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       |                   |
|---------|-------|-------------------|
| 주 임 신 부 | 정 재 준 | 사도요한              |
| 보좌 신 부  | 정 훈   | 요셉 (청년부)          |
|         | 이 춘   |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
| 전 교 수 녀 | 박 경 석 |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
|         | 정은자   | 한나 (원장)           |
|         | 정 선 아 |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
|         | 정 정 아 |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
| 꿀벌유치원   | 최 향 숙 | 베로니카 수녀           |
| 요셉어린이집  | 김 아 람 | 소화데레사 수녀          |
| 총 회 장   | 황 태 영 | 프란치스코             |
| 연령회 총무  | 옥윤필   | 마티아 010-5117-5564 |

##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         |         |         |         |         |
|---------|---------|---------|---------|---------|
| 3/7(월)  | 3/8(화)  | 3/9(수)  | 3/10(목) | 3/11(금) |
| 사목위원    | 23구역    | 24구역    | 1구역     | 2구역     |
| 3/14(월)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 7구역     |
| 3/21(월) | 3/22(화) | 3/23(수) | 3/24(목) | 3/25(금) |
| 8구역     | 9구역     | 10구역    | 11구역    | 12구역    |
| 3/1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 13구역    | 14구역    | 15구역    | 16구역    | 17구역    |
| 4/4(월)  | 4/5(화)  | 4/6(수)  | 4/7(목)  | 4/8(금)  |
| 18구역    | 19구역    | 20구역    | 21구역    | 22구역    |
| 4/11(월) | 4/12(화) | 4/13(수) |         |         |
| 23구역    | 24구역    | 1구역     |         |         |

## ◎ 알 림

- 이번 주 목요일(02월 24일)부터 10시 미사는 잠정 중단됩니다.
-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및 판공성사표 배부 안내  
- 구·반장님은 사순실천 봉헌(사순저금통), 판공성사표를 구역·반에 나누어 주시고, 5지역(구역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03월 1일(화) 사무실 정상 근무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3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사순시기)

##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03월 05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 재의 수요일 안내 - 03/02(수)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진행합니다.

- 재의 수요일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 ~ 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02/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새벽 06:30 저녁 7시

##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 유·초등부 미사에 어린이와 가족을 초대합니다.

- 대 상 : 5세부터 초등5학년까지 어린이와 가족
- 미사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소성전

##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 기간 : 2022.01.03~방역 당국의 지침변경 시까지.
-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미사 참석자는 백신 3차 접종 확인 도장을 받은 본당 명찰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 신자분들은 주일 교중미사에만 강당에서 참석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 다음 주일(03/0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      |     |      |
|------|------|-----|------|
| 국수잔치 | 쉽니다. | 청 소 | 16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02월 16일 ~ 02월 22일)

|         |                                                    |
|---------|----------------------------------------------------|
| • 교 무 금 | 5,757,000원                                         |
| • 주일헌금  | 3,348,800원                                         |
| • 감사헌금  | 김정희 5만원 정도선20만원 이선자10만원<br>이○○20만원 김○○10만원 양수미20만원 |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일    | 해설  | 복사  | 독서  |
|-------|-----|-----|-----|
| 02/27 | 이영민 | 김영균 | 김진수 |
| 03/06 | 손진희 | 오성환 | 신종구 |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일 | 06:30 | 10:30 | 12:00 |
|-------|-----|-------|-------|-------|
| 02/27 | 최상남 | 박형순   | 장인홍   | 최석준   |
| 03/06 | 최영만 | 김인기   | 최상남   | 최승일   |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유익한 교류**

137. 국가 간의 상호 원조는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고유한 문화적 기층에 견고히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인류 전체를 위한 보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거나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 겪는 가난, 타락, 고통은 결국 지구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될 문제의 암묵적 온상지가 됩니다. 우리가 일부 종의 멸종을 걱정한다면, 세계 일부 지역의 개인이나 민족들은 가난이나 다른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과 아름다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138. 이는 언제나 참된 사실이었지만, 세상이 세계화로 서로 연결된 오늘날만큼 이러한 사실이 더욱더 자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연대 안에서 모든 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중대시시키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전 세계에 이득이 됩니다.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개발 원조가 모든 사람을 위한…… 부의 창출”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공동 의사 결정에서 가난한 나라들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는” 것과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무상성**

139. 그러나 저는 이 회칙을 일종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한정하여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상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상성은 개인적 이득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에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상성은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을 환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은 과학자들과나 투자자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140. 형제적 무상성이 부재한 삶은 우리가 준 것과 그 대가로 돌려받는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숨 가쁜 상거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서는 불충실한 이들에게조차 무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마태 5,45).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우리는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으며, 대가로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